



 <p>중국전문가포럼</p> <p>http://csf.kiep.go.kr/</p>	<p>「이슈&트렌드」</p>
<p>2018. 07. 13.</p>	<p>중국,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p> <p>작성 박민숙 전문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p>

- 중국정부는 대외개방 확대 기조하에 외국인 투자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판)를 발표함¹⁾.
- 올해 4월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博鳌) 포럼에서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여 4대 조치(시장진입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재권 보호 강화, 수입확대)를 발표²⁾
 - 3월 양회에서 2018년 10대 중점업무로 ‘전면적 개방확대’를 확정 후,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각종 정책³⁾을 시행 중
 - 한편, 중국정부는 2013년 자유무역시험구⁴⁾에 처음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외자관리 시스템(진입전내국인대우+네거티브 리스트)을 도입 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를 점차 축소시키며 개방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중미간 무역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그동안 개방도가 낮았던 분야(자동차, 금융업 등)의 개방을 통해 통상 분쟁에 대응
- 이번에 발표된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7년에 비해 제한 항목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특히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가 크게 완화됨.
- (전국) 네거티브 리스트는 48개 항목으로 2017년(63개)에 비해 15개가 축소되고, 자동차와 금융업 분야에 대한 단계별 개방 시간표가 제시되는 동시에 처음으로 선박, 항공 분야의 진입 제한이 완화되거나 취소
 - (자동차) 전용차(專用車), 신에너지 자동차는 2018년에 전면개방되며, 상용차(商用車) 제조(2020년), 승용차 제조의 전면개방(2022년)일정이 명시
 - (금융업) 은행업의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폐지되고, 증권업, 자산운용업, 보험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1%로 완화 후 전면개방(2021년)될 예정
 - (기간산업)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었던 인프라, 교통운송, 선박 및 비행기 등 분야에 규제가 취소되거나 완화⁵⁾

1) 중국정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투자를 위한 특별관리조치(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8年版)」는 6월 28일에 발표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서만 시행되는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를 위한 특별관리조치(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8年版)」는 6월 30일에 발표

2)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 인민은행의 이강 총재는 외자기업의 내국민 대우 방침과 금융회사의 외국자본 투자한도 철폐 및 업무범위를 확대를 핵심으로 개방 로드맵을 발표(4/11), 이후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외자지분 한도를 폐지하고 그 범위를 에너지, 인프라 등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04.17).

3)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 서비스업의 개방수준 제고, 일부 분야의 외자지분을 제한 및 철폐 등

4) 중국 정부는 2013년부터 외자유치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 텐진, 광둥, 푸젠, 라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 하이난 등 12개(2018년 7월 기준).

5) 인프라(철도건설 및 전력망 건설), 교통운송(철도여객운송, 국제해상 운송, 국제선박 대리), 상업유통(주유소), 문화(인터넷 등록서비스 제공 영업장), 선박(설계, 제조, 보수), 비행기(중대형 항공기, 범용기, 헬기 등), 농업(밀 옥수수 이외의 종자생산), 에너지(희소한 석탄류 채굴)에 대한 외자규제를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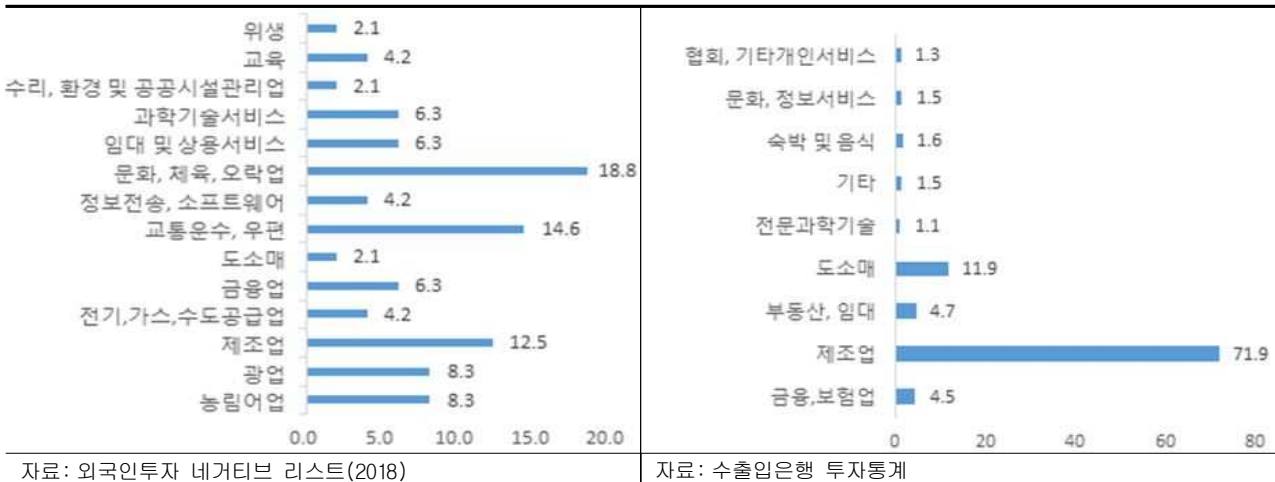
- (자유무역시험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시 3개 산업(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합작투자, 방사성 광물 제련 및 핵연료 가공, 공연관리기구 중국자본 투자)에 대해 투자 제한이 추가로 해제
- 이번 발표로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우리기업은 중국내 투자환경 변화를 감안한 시장진출 전략과 진입 후 경쟁 격화에 따른 기업차원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중국내 외국인 투자 추세는 이미 제조업(24.6%) 중심에서 서비스업(73.7%)으로 변화되었으나 한국의 대중투자는 여전히 제조업(71.9%)에 집중⁶⁾
- 한편, 이번 조치로 금융업, 인프라, 교통운송, 유통서비스업의 개방이 확대되었으나, 문화 콘텐츠 등 일부 산업의 해외수입 규제는 여전히 금지
- 금지항목 중 높은 비중(18.8%)을 보인 문화 관련 서비스업 중 라디오 TV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업무는 합자제한이 폐지되었으나,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은 여전히 금지
- 향후 개방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기업은 진입후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투자제한 조치의 철폐뿐만 아니라 기타 중국 국내법 및 제반환경 등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그림 1. 2018년판 네거티브 리스트 산업별 비중(전국)

그림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산업별 비중(2017)

(단위: %)



6) 중국의 외자유치금액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2차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 2017년 기준 3차 산업의 비중이 73.7%로 2차 산업 24.6%의 약 3배

표 1.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주요 항목	비고
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 2013년 9월 공표 - 2011년 ‘외상 투자 산업지도 목록’ 을 기반으로 작성 - 16개 산업의 64개 영역 - 특별관리 조치는 190개 (금지 38개, 제한 152개)
20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 2014년 6월 공표 - 16개 산업의 56개 영역 - 특별관리 조치는 139개 (금지 29개, 제한 110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개위, 상무부 합동) 2015년 3월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발표1) ◦ 상하이 자유 무역시험구에서만 시행되던 네거티브 리스트가 전국으로 확대 도입 - 20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권장류, 제한류, 금지류로 업종을 분류 - 특별관리조치 93개(금지 36개, 제한 38개, 지분제한 1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 2015년 4월 공표 ◦ 자유무역시험구 4개로 증가(상하이, 톈진, 광둥, 푸젠) - 14개 산업의 50개 영역 - 특별관리 조치 122개 (금지 39개, 제한 83개)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개위, 상무부 합동) 2017년 6월 전국 표준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 2017년 지도목록은 권장류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류+ 금지류)로 분류 - 특별관리조치 63개(금지 28개, 제한 3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 2017년 6월 공표 - 14개 산업의 40개 영역 ◦ 자유무역시험구 11개로 증가(상하이, 톈진, 광둥, 푸젠, 라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스촨, 산시) - 특별관리 조치는 95개 (금지 30개, 제한 65개)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개위 상무부 합동) 2018년 6월 공표 - 특별관리조치 4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개위 상무부 합동) 2018년 6월 공표 - 특별관리 조치는 45개

주)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 운용되던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 이 과정에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이 전국 표준의 네거티브 리스트로서의 역할을 담당

자료: 저자정리

참고자료

중국 인민정부 홈페이지, 중국 상무원 홈페이지, IHS 등